III-1 교대~교려 시대의 문학 [1] 기락국 신화

모의 평가 1회 정답 및 해설



정답 및 해설

13 24 30 43 55

1

[정답 해설] ⓐ '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년 (A.D. 42년)'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, '북쪽 구지봉'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도 나타난다.

- ⓒ 이 글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의 탄생과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.
- ④ 하늘에서 금합이 내려오고, 알에서 신성한 인물이 태어나는 등 비현실적인 성격이 강하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b 이 글에서 노래를 부른 '구간'은 개인이 아니다.
- 원시 종합 예술은 시가와 무용, 음악이 분화되지 않 은 집단적 가무의 형태이다.

2

□ 정답 해설 □ 개인의 진솔한 감정을 독백체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, 집단의 의식을 담아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른 노 래이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하늘의 소리에 따라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부른 노래 이므로 의식요로 볼 수 있다.
- ②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면서 부른 노래이므로 노동요의 성격이 강하다.
- ③ 첫 구에서 노래의 청자인 '거북'을 부르면서 주위를 환기하고 노래를 시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.
- ⑤ 노래를 불러서 임금을 맞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.

3

| 정답 해설|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이자,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③ '네 목을 내밀어라.'라고 대상인 거북에게 소망을 명령조로 요구하고 있다.
- ⑤ '구워 먹겠다.'는 대상인 거북을 위협하여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.

4

| 정답 해설| '붉은색 보자기'는 금합에 있는 여섯 알의 고 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.

|오답 피하기|

- ② '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'는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가락국이 맥이 닿았다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.
- ⑤ '알 여섯 개'는 대왕을 소망한 집단의 결과물이며, 여섯 어린아이로 변하여 신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.

5

| 정답 해설 | 이 글에서는 | 보기 | 와는 달리 중심인물이 시련을 겪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|보기|에는 '천제의 아들인 해모수', '하백의 딸인 유화'가 결합하여 '천부지모'의 구조가 나타나지만, 이 글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.
- ② |보기|에는 '천제-해모수-주몽'의 삼대기 구조가 나타나지만, 이 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.
- ③ 이 글의 수로왕과 |보기|의 동명왕은 하늘의 자손이다.
- ④ 이 글과 |보기|는 모두 신화이며, 전설과 달리 이 야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.